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7	09. 14	09. 21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식 - 다음 주일(7일)은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하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 환영합니다. - 경아 Steinbauer, 인동 ThieBen 성도
5. 8월 생일 축하 - 황희순(1일) 인동 Thießen(5일) 최종열(14일) 류현석(17일)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용현 안수집사
귀국	김시은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8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63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겔 20 : 33 - 39(구p1179) (Hesekiel 20:33-39)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주님의 손에 거하세요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커튼 뒤에 숨는 사람들

사람들은 참된 자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숨기기 위해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감정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커튼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최대한 빨리 다시 커튼 뒤로 숨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웃의 참모습을 거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자신까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아인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 판단은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나 개인도 최종 판단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 A. W. Tozer(미국 목사 겸 작가)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